

미쓰비시-록히드 방위산업 제휴,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

일본 미쓰비시 전기와 미국 최
대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
24일 방위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
게 제휴하기로 기본 합의했다고
니혼게이지가 신문이 지난 8월 25
일 보도했다. 이에 따르면 양사는
항공기와 함정에 탑재하는 레이
더, 무기관제장치, 전자전시스템,
차세대 미사일용 각종 전자기기
등 중요 방위 장비를 업계에서 처
음으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.

합의내용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
는 방위기술과 시장 정보를 교환
하고 일본 방위청이 필요로 하는
신제품, 신기술을 공동으로 제안
하며 록히드는 전자기기의 일본
라이선스사로서 미쓰비시전기와
연대를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.

양사는 구체적인 제휴내용을
정리해 금명간 합의문서를 교환
하기로 했으며 미사일의 심장부
인 유도제어장치 등을 업계 최초
로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
고 있다.

미쓰비시 전기는 97년 방위청
에 납품한 실적이 1천3백억엔으
로 일본내 3위지만 방위전자기술
분야에서는 NEC, 도시바를 따돌
리고 수위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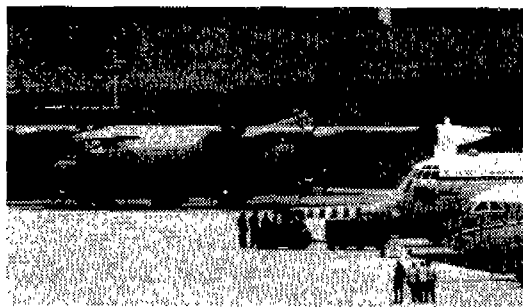
또 97년 매출이 2백80억달러인
록히드는 일본에 대잠초계기 P-

3C와 이지스함등을 납품, 해외업
체로는 납품액이 가장 많은 것으
로 알려졌다.

록히드 마틴, 영국공군에 첫 C-130J인도

록히드 마틴은 지난 8월 24일,
원래 예정보다 2년 늦게 영국공군
에 C-130J 1호기를 인도했다. 이
를 시작으로 록히드 마틴은 올해
안에 30여대의 C-130J를 각 발주
국에 인도할 예정이다. 영국 공군
에서 발주한 C-130J는 총 25대로
서 표준형이 10대, 동체연장형이
15대이며 오는 2000년 초반까지
모두 인도될 예정이다.

호주 공군에서 발주한 12대의
C-130J는 올 가을에 민간기용 형
식증명이 마무리되면 인도가 시작
될 예정이고 10월부터는 미 공군
과 해병대에서 발주한 28대분은
10월부터 인도될 예정이다. 12대
를 발주한 이탈리아에 대한 인도
는 좀 늦어져서 2000년부터 개시
될 것으로 보인다.



영국공군에 인도되는 C-130J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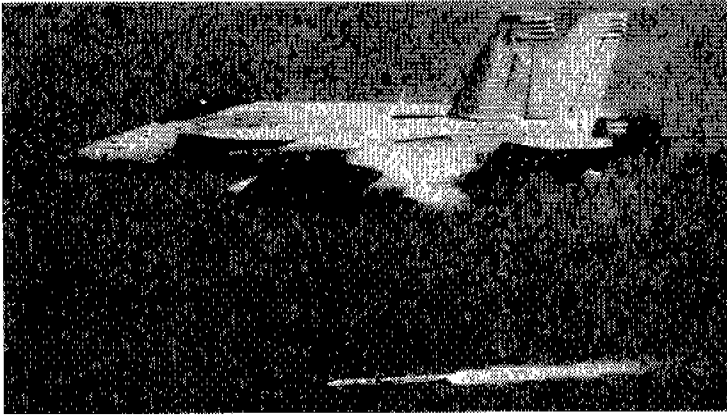
C-130J의 인도 개시와 더불어
록히드 마틴은 올 연말까지 C-
130J 조립라인의 리엔지니어링
작업을 완료해서 비용을 절감하고
조립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. 현
재 록히드 마틴은 83대의 C-130J
를 수주했고 63대 이상이 옵션 수
주 상태이지만 매월 2대의 생산량
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
더 많은 항공기를 수주해야 하는
실정이다.

한편 영국 공군에 인도된 C-
130J 1호기는 8월 26일 보스컴
다운에 있는 DREA(Defence
Research and Evaluation
Agency)에 도착해서 각종 시험
절차에 들어갔으며 2호기는 지난
판보로 에어쇼에 전시된 후 보스
컴 다운을 향했다.

F/A-18E/F 수퍼 호넷 비행시험 치질

오는 11월에 완료될 예정이었
던 F/A-18E/F 수퍼 호넷 전투기
의 개발비행시험이 내년까지 계속

될 전망이다.
F/A-18E/F의
비행시험에 배정
된 비용은 총 4천
시간, 2천5백회의
비행시험을 위한
것이었으나 기동
중에 발생하는 링



F/A-18E/F 슈퍼 호넷 전투기의 개발시험비행이 내년까지 계속된다

드롭 현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
예정에 없던 512시간, 315회의
비행시험이 실시되어 전체비행시
험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
보인다.

F/A-18E/F는 총 7대의 시제
기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약 2천8
백시간, 천9백회의 비행시험을 실
시하였고 남은 비행시험이 내년 3
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
때문에 내년 5월부터 실전배치를
위한 작전능력 평가를 시작하려던
당초의 계획에는 별 영향이 없을
것으로 보인다.

T-6A 텍산II 첫 비행에 성공

J-PATS 계획에 의해 미국의
차세대초등훈련기로 선정된 T-
6A 텍산II가 지난 7월 15일 캔사
스주 위치타에서 첫 비행을 실시
했다. 현재 지속적인 비행시험이
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9월의 판보

로 에어쇼에도 전시되었다. 이 기
체의 FAA인증 취득은 1999년 1
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까
지 700대를 생산할 방침이다.

러시아 사출좌석 시험 개시

미국의 요구조건에 맞게 개조된
러시아제 전투기용 사출좌석의 시
험이 시작되었다. 그러나 이 좌석
이 미공군 전투기용으로 선정된다
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미국의 요구
에 맞게 양산할 수 있을 지에 대
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.

현재 시험되고 있는 K-36D-
3.5A 사출좌석은 즈베즈다 설계
국에서 MiG-29 전투기용으로 생
산한 K-36D의 경량형이다. 미공
군에 의하면 러시아와 미국에서
이전에 실시된 K-36D 사출좌석
의 시험결과 이 사출좌석의 성능
이 미국제 사출좌석보다 우수한
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.

이 개량형 사출좌석은 헤드레스트와 낙하산박스가 작아져서 조종사의 어깨너머 후방시야를 확보하는데 보다 유리하며 다양한 신체 사이즈의 조종사에게 낫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이 K-36D-3.5A 사출좌석의 잠재적인 용도 중의 하나는 현재 개발중인 JSF 전투기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JSF 개발팀 중 록히드 마틴쪽에서는 마틴 베이커제 Mk16 경량 사출좌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. 시험결과에 따른 사출좌석 채택에 대한 즈베즈다사와의 협상은 양산 가능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.

MiG-29UBT 첫 선

MIG-MAPO사는 최근 2인승 다목적 전투기인 MiG-29UBT를 주코프스키시(市)에 있는 LII 연구소에서 몰아웃했다. 이 기체는 복좌훈련기인 MiG-29UB를 기초로 개발되었지만 UB와는 달리 실전용 무장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MiG-29SMT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조종석 뒤 동체 등부분에 천6백리터 용량의 연료탱크를 장착하여 항속거리의 증가를 가져왔다.

MiG-29UBT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판보로 에어쇼에서 MiG-29SMT와 함께 일반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주로 해외에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.